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와 각종 행사로
여의도에서 부활절연합예배로 모여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이다. 온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부활절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한국교회는 1993년의 부활절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며, 특히 남북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계획하기도 했다. 오늘 새벽5시에는 여의도광장에서 부활절연합예배가 드려졌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에 성찬식을 가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싹들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냈다. 특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는 연일 본당에서 모인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주어

진 삶을 살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고난주간 중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결심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후에 맞는 오늘 부활주일은

감사와 기쁨의 부활주일

우리로 새롭게 태어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맞게 하고 있다.

부활주일을 맞으며 교회는 주일예배를 부활절 축하예배로 드리며 부활을 맞는 기쁨과 감사를 전한다. III부 예배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요한복음 20장 11-23절의 본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I, II, IV부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사사기 6장 19-24절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본문으로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

한편 주일저녁 찬양예배시간에는 아멘찬양대와 충현오케스트라가 헨델의 메시아 중 '고

우리 삶의 근본이며,
우리 생활의 중심이신 주님

난과 부활' 부분을 연주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각 교회학교에서도 계란 콘테스트, 연극, 찬양대회, 그림그리기대회 등을 가져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아울러 우리의 삶의 근본이며,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신 주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와 진지한 삶으로서의 추구를 다짐하는 일들이 각 개인마다 있어야 할 것이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4월 16일, 합동신학교 교장(윤영탁 목사)취임 설교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목회자 세미나 특강(매주 월)

부활절 음악예배

오늘 저녁 찬양예배, 아멘찬양대

교회는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아 아멘찬양대와 충현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부활절 축하음악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고난과 부활' 부분을 연주하게 되는데 지휘에는 이관섭 장로, 반주에는 백금옥 집사이다.

곡중 독창에는 소프라노에 박도영, 알토에 방남희, 테너 박상현, 베이스에 최덕석이 담당한다.

제43회 수도노회 개최

강은원, 김차생, 오태희 장로
총대로 파송

제43회 수도노회가 오는 4월 13, 14일 이틀간 대성교회당에서 개최된다. 93년 봄 정기노회에 우리 교회는 장로총대로 오태희, 김차생, 강은원 장로를 파송기로 했다.

제 4회 충현올림픽 표어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제4회 충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지난 4월 6일(화) 오후 7시 교육국에서 제8차 조직위원 회의로 모여 공모로 접수된 표어를 심사한 결과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가 확정되었다.

동 표어는 제4회 충현올림픽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전교인이 한 덩어리가 되어 손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성도들의 유대 강화, 그

리고 체육을 통한 신앙 공동체 성격을 함축성 있게 의미가 부여되었고,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비전을 제시했다는 심사 소감이 있었다.

당선작: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순신애(제17교구 장미구역, 고등부 회원)

군전도회

육군 부대 동해교회 방문예배

군전도회 회장 김재명 장로의 74명은 지난 3월 31일(수) 동해교회를 방문하여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 지휘관, 참모, 교인, 장병 1,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동해교회 군목 조승표 목사가 사회를, 기도예 김재명 장로, 특송에 박옥식 권사가 찬양은 군전도회 찬양대가 담당했고 설교는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 지도인 임성한 목사가 했다. 예배후 전도비를 전달하고 위문품(빵, 음료)을 권사들과 지휘관들이 장병들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친교실에서 가진 기도회에는 지휘관, 참모, 교인, 방문단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금주의 청지기 훈련

제2연합교구(2, 5, 6, 18, 20, 23교구).

4월 12, 13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난주부터 시작한 '93청지기 훈련은 금주에는 4월 12(월), 13(화)일 양일간 제2연합교구를 대상으로 열린다. 각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2시간의 강의와 친교시간, 기도시간으로 진행되는데 금주에 모일 제2연합교구는 2, 5, 6, 18, 20, 23교구이다.

교회에서는 직장에서 바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오후 6~7시 사이 저녁식사를, 또한 한시간 끝난 8시30분에는 간식을 제공한다. 이 청지기 훈련에는 제직은 물론 교사, 찬양대원, 교구 일꾼 등 모든 직분자가 필히 참석해야 한다.



'93 청지기 훈련 시작

'93년도 청지기 훈련이 지난 4월 5, 6일 양일간 제1연합교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매년 한번씩 봉헌에 실시되는 이 청지기 훈련은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참여하여 직분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제직은 물론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구역일꾼 등 모든 직분자, 봉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애당초는 사람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자신이 맡은 직분과 금년 교회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각오를 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충현강단



그물 비유

(마 13:47-50)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마 13:45,46)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일곱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물 비유는 전체 비유의 결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물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물 비유는 교회안에는 모든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이 세상에 여기저기 있는 그 많은 고기들을 전부 다 교회로 모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구별하실텐데,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를 나누듯이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바다에 친 그물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들이 있습니다. 바다 중에서도 특별히 갈릴리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파도가 치고 풍량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량이 이는 세상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 그물이라는 말은 교회의 조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물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고기들을 잡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회도 있고 제직회도 있고 남녀전도회도 있는데 특별히 조직 가운데도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은 구역입니다. 수 많은 구역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그물과 같은데 문제는 그 그물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물에 구멍이 생기면 고기들이 잡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그물 비유는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 구원에 대한 관심이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기를 잡을 때에 낚시를 통해서 하나씩 들썩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가십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기관이기도 하고, 낙심한 세상사람들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해진 심령들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누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고기들을 잡

아서 모아야 하는 책임을 진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물이 아무리 값이 비싸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물은 그물이라 할 수도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조직이 좋고 다 좋다 하더라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 기둥이 있습니다. 교육관, 선교관, 봉사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세 기둥입니다. 먼저 선교를, 부지런히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한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천국일꾼을 만들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주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2. 그물(sagene)의 종류

넓은 바다에서 많은 고기들을 잡을 때는 배와 배 사이에 큰 그물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배가 같은 속도로 바다를 훑습니다. 제가 마산 앞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보았는데 특별히 밤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평강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밤에, 인생의 밤에, 역경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질병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가 바로 전도할 좋은 기회라 그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물이 여러 가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물입니다. 또 잠언 7장 23절에 보면 “음녀의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음녀는 그물과 같습니다. 남자를 일단 한번 잡아 놓고는 그 그물 안에서 헤어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보면 “심판의 그물”이 나옵니다. 심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물은 그런 그물이 아니라 교회의 그물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조직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역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역이라고 하는 단위는 아주 작은 단위지만 그러나 이 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활동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역의 장이되는 구역장은 그물로 볼 때에 작은 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물에 구멍이 한 번 터지고 나면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술술술 도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그물을 키워야 합니다.

3. 좋은 것과 나쁜 것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천국,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둘로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비로소 잘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습니다.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먹습니다. 첫째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둘째는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굽이 갈라졌다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김질한다고 했는데 새김질하는 동물은 맹수와 같은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풀을 뜯어 먹고 나서 적이 없는 가장 평화로운 때 먹은 것을 다시 되새겨서 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김질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됩니까? 9절 이하를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느러미가 무엇입니까? 살아 있는 물고기는 이 지느러미로 물결을 탁탁 쳐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이 자꾸 내려올 때, 유행의 물결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고난의 물결이 내려올 때에 이 물결을 따라서 그저 손쉽게 그냥 흘러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물결을 내려오지만 그것을 지느러미로 치며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지느러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 비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는 물 속에 깊이 안들어 갑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세속의 깊은 속에, 죄악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날에는 여기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고 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 때문에 성도간의 교제가 깨어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고기가 좋은 것과 못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듯이 본문의 중요한 결론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정한 고기와 못된 고기, 즉 신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더럽고 불의한 죄를 범해듯이 저지르는 위선적인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섞여 있는 단체입니다.

4. 갈라냄

본문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마치 고기들을 다 모아서 물가로 끌어 내어 구별하듯이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장소, 심판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제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둘을 나눌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구별될 거짓 성도가 있습니다(살후 3:11-12).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나날 때가,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히 9:26).

그러므로 우리는 끝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벧후 3:9)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못된 고기일진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을 경고해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못된 고기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다 못된 고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듯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다 좋은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연결이 되어지는 신앙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해서 의인은 그릇에 담고 악인은 그냥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디다가 던져버립니까? 지옥에다 던져버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 정한 고기, 좋은 고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릇에 다 담길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

길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큰 길, 작은 길, 고속도로, 산업길, 산길, 오솔길 등 수많은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혼란이 생긴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가 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다. 더구나 인생이란 길 가는 나그네와 같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왔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세에 큰 업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 그냥 왔지만 사람들에게 비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길이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바른 길을 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바른 길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들에게서 배운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리스도는 길을 묻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글 / 신성종 목사

책 소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생활

알란 래드파스 지음 / 이종수 옮김 / 216면 / 값 3600원 / 두란노서원

신 표 근

(목사, 5교구, 청년2부 지도)

이 책은 미국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 및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알란 래드파스 목사님의 강해설교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목회 도중 안식년에 뇌일혈로 쓰러진 와병 중에 지난 날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영적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던 자아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완전히 회복된 후 보충인생을 살면서 저자 자신이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높이며 그의 말씀을 생활에 옮기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 올바르게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무의하고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축복받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 능력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간증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오류는 깊은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일"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구속의 우선적인 목적은 우

리들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신앙생활을 산악등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산을 향하여 힘들여 올라가듯이 매일 매순간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 관련된 성경말씀에 비추어 강해해 놓은 이 책이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생활



평소에 주위에서 교회를 옮겨가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며 나만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나 역시도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부끄러운 간증을 할까 한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17년 전 영락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신앙의 성장과 봉사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수년 동안 마음

목사님의 차분하고 의미 있는 설교 말씀이 드디어는 정든 교회를 떠나 외로움에 지친 우리 가슴에, 정말이지 때로는 주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나약한 심령이 될 때도 있었지만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의 크신 손 내밀어 반갑게 맞아주시는 듯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주여! 내가 어찌 주의 뜻을 피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그렇게 충현교회로 오게 된 어느 주일 그 유명한 국수를 한번 맛보기

♣ 살며 생각하며 ♣

국수 한 그릇의 은사

손 정 애

(집사, 할렐루야찬양대 대원)

위해 우리 부부도 식당을 찾았다. 그리고는 무작정 서 있을 때 갑자기

의 주례 목사님과의 의리(?) 때문에 갈보리교회로 옮겨 또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 일에 앞장서는 즐거움에 살았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인간 중심의 기도요 충성이었던지 뜻하지 않게 온 교우들이 목사님께 실망하고 뿔뿔이 다른 교회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마침내 우리도 무작정 교회를 떠나야만 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솔직한 고백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난 우리에게 단련케 하시는 시련을 토크해 주셨다. 왜냐하면 거의 1년여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교회를 전전공공해야 했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시원치 않고, 저 교회는 분위기가 광신적인 기도원 같고 등등의 우리만의 오만한 이유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헤매야 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에 상하셨을까! 때로는 주일이면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11시가 되어서야 집을 나서 무작정 어느 교회당으로 불쑥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도 어색해서 다시 슬그머니 나와 간판을 보니 통일교 예배당일 때도 있었다.

이런 방황 속에서 무심코 어느 주일 우리는 충현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신성중

기 뒤에서 "이 줄은 찬양대 줄입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러자 순간 우리는 임기응변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찬양대 봉사하지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들 "네, 그러세요" 하며 웃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사히 그날 국수 한 그릇씩을 대접받고 할렐루야찬양대에 들어와 이제는 뻔뻔하지 않게 마음놓고 점심 때면 식당에 들어갈 자격도 얻었다.

돌이켜보면 그날도 예배가 끝나고 여느때처럼 쓸쓸히 돌아설 우리 부부를 주님께사는 식당으로 이끄시고 국수 한 그릇뿐이 아닌 넘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다.

사실, 요즘에 해가 갈수록 수출이 안되어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잠 못이루는 그이 곁에서도 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때가 되어 충현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찬양대 가족이 되는 사랑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 또 길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재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뿔뿔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사리로다" (시 37:5,6)

주여! 올해도 충현에서의 52년의 추배를 한 잔도 빠뜨리지 않고 마실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3천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을

매일 2천여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5살 이하 어린이가 1/4이 죽었고, 긴급식량원

소말리아를 위하여....

남녀전도회 및 권사회에서 구제금 모금에 나서
4월 14일 수요일 부예배 후 간증 및 영화

대부분은 어린이들이다. 하루에 4만명, 일년이면 1,400만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소말리아는

조가 없으면 나머지 3/4도 6개월 안에 숨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한국선명회가 주축이 되어 구호운동을 벌이고 있고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말리아 구호를 위하여 남녀전도회 및 권사회가 이에 동참키로하고 이를 위한 모임과 구제금 모금에 나섰다.



- 일시 : 1993년 4월 14일(수), 수요일 부예배후
- 장소 : 본당
- 내용 : 소말리아에 관한 간증 및 영화상영(간증 : 탈렌트 정영숙씨)
- 구제금 : 당일 지역 및 감자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구제금으로 전달함.

정종태씨 제명 출교기로 결정

교회는 지난 1992년 9월 30일 정기당회에서 그 당시 총현동산 권리직에 있던 정종태씨를 여러 비리 사례들로 인하여 총현동산에서 권고 사직시켰다. 그러나 정종태씨는 이에 불복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내용증명, 서신등으로 사무국장과 교회를 향해 덕스럽지 못한 온갖 방법으로 물의를 일으켜 왔다. 즉 그 내용을 요약하면

- 1)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당회의 권고사직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항변
- 2) 동산조성 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동산조성공사 시공업체를 마치 어느 개인이 이권에 개입된 양 물의를 일으킴
- 3) 정종태가 직접 기록한 자술서에서 공금을 유용하여 이자놀이를 하였다고 인정해 놓고도 이를 마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처럼 부인함.
- 4) 온갖 이유를 붙여 서면질의를 해놓고 지정세일까지 회신에 없으면 모든 결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며 자기 자신을 억지로 합리화 시키고 있음.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유인물을 만들어 주일에 교역자와 안수집사 또는 자기와 가까운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차량 봉사실이나 기사 대기실에서 교회를 헐뜯는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고, 더구나 교회에서 공격으로 집행하는 금융거래까지도 은행을 찾아다니며 입출금 내역을 추적 조사하면서 은행측이 내부사정을 들어 협조를 거부하면 갖은 횡포를 부리는 등 교회로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교회를 욕되게 하며 교인을 현혹시켜 혼란케 하는 정종태씨에게 더 이상의 관용이나 인내는 오히려 교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교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이를 처리하게 된 것이다.

교회가 처리하는 목적은 1) 진리의 보호를 위하여 2)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3) 죄악의 제거를 위하여 4) 교회의 선결과 권익을 새우기 위하여 5) 범 죄자의 선량적 유익을 위하여 당회가 판단하며 처리하는 것이다.

교회가 처리하는 목적은 1) 진리의 보호를 위하여 2) 그리스도의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3) 죄악의 제거를 위하여 4) 교회의 선결과 권익을 새우기 위하여 5) 범 죄자의 선량적 유익을 위하여 당회가 판단하며 처리하는 것이다.

■ 기도원→교회 간 버스 운행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교회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오전 10시	-
출발	오후 7시	오후 7시	오후 7시	오후 7시	금요일집회후	
기도원		오전 6시	오전 6시	오전 6시	오전 6시	새벽
출발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	오후 4시	2,5,6시

토막소식

- ◆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이종석 장로)는 교회음악협회가 주관하는 성가합창제에 참가한다. 곡명은 '주기도와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 ◆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부활절을 맞으며 그림그리기대회를 갖는다.
- ◆ 유치원(원감 정지자)은 교통문화의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가족회의' 실시를 권장하고 있다.
- ◆ 초등2부(부장 김중구 장로, 지도 정갑신 전도사)는 4월 25일 고린도전서 13장을 범위로 암송대회를 할 계획이다.
- ◆ 초등3부(부장 김여순 장로, 지도 이홍성 목사)는 4월 한달을 초청전도의 달로 정하고 태신자를 적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
- ◆ 초등6부(부장 이창호 장로, 지도 한용관 목사)는 안드레전도운동을 위해 태신자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 ◆ 중등1부(부장 최무길 장로, 지도 김희수 목사)는 잃은 양 찾기 및 새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 ◆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이종대 목사)는 4월 11일 달걀바구니 콘테스트를 또한 예쁜엽서 꾸미기 대회가 있다.
- ◆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정연해 목사)는 4월 11일 부활절찬양대회를 위한 예비선발을 거쳐 4월 18일에 본선을 가질 예정이다.
-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1993년도 미래지도자운동을 3단계로 실시한다. 1차는 전도폭발운동(4월), 2차 나눔과 섬김의 운동(6월), 3차 생활운동(9월)으로 이어진다.
- ◆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장우천 강도사)는 부활절 기념행사로 로마서 4:8장 범위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또한 다함께 식사하는 '도시락 주일'로 지킨다. 4월 17일에 안양에 있는 '원로원' (무의탁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을 방문한다.
- ◆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는 III부 예배후 집회시간 전까지 교육관 7층에서 '친교시간'을 갖는다.
- ◆ 장년1부(부장 정운석 장로, 지도 권성수 목사)는 4월 18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407호에서 요한·마리아 전도회원들을 초청

하여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 소망부(부장 마성락 장로, 지도 이인우 목사)는 4월 18일에 '환절기 건강관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다. 강사는 우기진 장로.
- ◆ 전도회 연합회는 소말리아 구제건으로 각교회 여전도회 회장 모임을 4월 13일(화) 오전 11시에 베다니홀에서 모인다.
- ◆ 법조인 전도회(회장 김광삼 장로)는 사무실 준비관계로 중단하고 있던 법률상담을 오늘(4월 11일)부터 매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법조인 전도회실(교육관 108호실)에서 재개한다.
- ◆ 교회는 교역자 사택인 제1,2,3 목양관 및 잉꼬하우스등 총 37세대에 도시가스를 설치키로 했다. 이번 도시가스 설치의 난방도 가스보일러로 전환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루게 됐다.
- ◆ 충현기도원은 4월26(월) 저녁부터 29(목) 새벽까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경건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참석예상자는 약200명이고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종 목사, 성세경 목사(서인천 중앙장로교회 시무), 김중남 목사(파도리 교회 시무), 이종석 장로(충현교회 시무), 유창무 목사(충현기도원 지도)이다.
- ◆ 영어예배부(부장 김천재 장로, 지도 노봉

린 목사)는 4월 11일(주일)부터 봉사관으로 이전한다. 그동안 본당 베다니홀에서 드렸던 영어예배는 봉사관 가나홀(지하1층)에서 9시부터 드리게 되고, 또한 영어 각부 주일 학교도 봉사관 2층부터 지하 3층에 각각 분산되어 매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 현재 성인 출석평균 180명, 주일 학교 100명인 영어예배부는 장소이전을 계기로 더욱 배가부흥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개발하고 있다.

◆ 제 8 교구에서는 지난 3월 28일 교구 총동원 모임을 갖고 교구 새가족 환영과 지역별 소그룹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고양시, 일원까지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8교구에서는 매주 교구모임의 다양한 활동으로 더욱 활성화된 교구부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선교지 탐방기 : 홍콩편(2)

수상족

홍콩을 인상깊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상족이다. 수상족이라 하면 베트남에서 망명한 보트 피플이 이루었던 집단이었으나 지금은 다 추방당한 상태이고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배를 타고 탈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생활한다. 조금 큰 배는 자체 동력을 소유하고 넓은 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대로 낭만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작은 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란 구차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오물로 오염된 밀집 지역에서 불과 한 두 평 남짓한 곳에 방과 부엌과 화장실이 뒤섞여 있었다.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들은 육지인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육지의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고 다시 배로 돌아온다고 한다.

수상족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다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조그만 배에 사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기어다닐 즈음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물 속에 빠져 죽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자아냈는데 어린 아이의 허리를 줄로 묶어서 배 한 가운데 고정시켜 놓는 것이다. 마치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강아지가 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을 연상케 했다. 마음 한 구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 순간 나는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넓은 세상에서 무분별하게 기어다니다가 혹시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생명줄로 우리를 묶어놓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줄을 끊고 자꾸만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가!

또 한번의 기도를 드린다. 주여, 그들의 환경이 어렵다고 동정하지만 말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시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위원회 제공>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여 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4월 16일(금) 윤영탁 목사님 합동신학교 교장취임식 설교
· 신성종 목사님 : 매주 월요일 목회자 세미나 특강
2. 이 나라에 불의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살게 하소서
4. 계속되는 청지기 수련회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5. 제4회 충현올림픽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1953 · 교회설립 40주년 · 1993

교회설립 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금주부터는 매주 2회씩 연습실시(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예배 후)
- 일정 : 6월 25일 ~ 7월 6일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지난주(4월4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처장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조직 확정.

3. 제4회 충현올림픽

- 지난주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여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손선애 · 고등부 회원)
- 지난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짐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평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이종섭	이인영	윤해균	정상수	정영덕
문경안	정석두	황인철	이신동	신광철
황인주	양기수	이지환	강춘희	신춘희
함용식	서대석	송인섭	허영철	이승득
류계선	윤석현	이상태		